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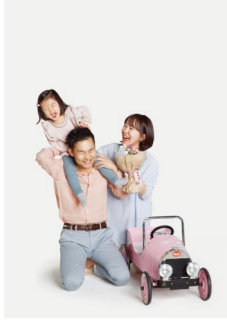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6
Spring

vol.181



봄 이야기

2016년 1월 30일은 이상호 & 박정은 부부의 딸 레아의 두 돌 되는 날이었습니다. 9개월 연장으로 사투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제 누구보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 레아. 행복이 샘솟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p.6 계속)

사진 | 이록 사진작가 · Looks Studio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1호 · 개간 **발행일** | 2016년 3월 10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정순규(자원개발실장),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창신(일신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TEL: 02-2135-1901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 홀트 이사장 | 이혜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목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전 홀트국후원회 회장) | 김경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신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성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 www.hollarum.or.kr T.02)334-4614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아프리카에 꿈을 심고 !!!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혹독한 추위와 가뭄, 예기치 않은 폭설로 당황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길어진다 해도 땅 속에서는 봄소식을 알리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활짝 열고 봄의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를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고,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회는 해외지원 사업으로 캄보디아와 몽골에 홀트드림센터를 운영해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우리의 역량을 확대해 탄자니아에 홀트드림센터를 개원하고 방과 후 교실 운영, 아동결연 사업, 여성교육 사업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아이들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미혼한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함께 추진 중인 캥거루스토어 확대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지원 및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후원과 직업훈련을 통해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혼한부모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동들이 학대 대신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를 교육하는 일, 학대받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치료와 보호를 받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새 봄을 맞아 물심양면 후원해주시고 봉사해주시는 홀트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도 새롭게 도약하며 성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홀트의 미션 '사랑을 행동으로!'

모든 어린이가 가정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홀트의 미션입니다.



홀트의 시작은 '사랑'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는 결연 후원을 넘어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 사업과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 부인 버다 여사와 함께 전 재산을 바쳤으며, 아이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다 숨을 거둔 해리 홀트 씨는 그가 손수 일군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한부모, 장애인, 저소득 계층, 다문화가정까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와 해외 빈곤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입양복지사업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시작한 입양

1955년 10월 한국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하는 것으로 시작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창립 정신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한국과 세계 입양 복지 사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상담소 운영

1957년 국내 입양을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지금까지 약 2만 4,000명의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었고, 전국 10개 사무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4년 전체 637명(20개 기관 합계)의 국내 입양 아동 중 187명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연결된 만큼 믿음과 신뢰,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입양인·입양가정 지원 프로그램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 상담과 교육, 가족 캠프, 입양가족 자조모임(홀트 한사랑회 www.holllove.net)을 지원, 행복하고 건강한 입양가정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외 입양인 친가족 뿌리 찾기, 국외 입양인을 위한 모국 방문 및 모국 정착 지원, 통·번역 서비스, 민박 지원 등 모국 문화와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 홀로된 영·유아 가정위탁보호

계획되지 않은 임신, 빈곤, 가정 붕괴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세 미만 아동 400여 명이 홀트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는 영·유아들의 언어·신체·정서 발달을 위해 1965년부터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교육 및 의료 지원

만 1세 이상 아동들의 신체·사회적 발달 도모와 발달지체 아동들의 지능·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문제를 지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홀트의료원을 운영, 전문 의료진이 매월 건강검진을 통해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육 사업

• 전주영아원과 일시보호소 운영

빈곤, 부모의 이혼, 아동 학대 등으로 가정을 잃어버린 영·유아와 아동들을 위해 전주영아원과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며 아동의 성장과 교육, 입양을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 위기 상담 및 빈곤 미혼모자 가정 생활 지원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모와 가족, 아동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자 가정을 위해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구축,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동 장애 상담과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임신으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인 홀트고등학교를 설립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운영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서울·수원·대전·대구)에서 6개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을 운영, 2년간 숙식과 의료 제공,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립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물품 지원 '365 베이비 케어 키트', 직업 훈련 및 자립 지원 '캠퍼스 투어', 싱글맘 아동 양육 지원 사업 '뜻깊은 엄마', 안정된 아동 양육을 위해 '주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 장애인 보호 사업 및 재활·자립 지원

영아부터 장년층까지 돌보아줄 가정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산복지타운·요양원을 운영, 맞춤형 재활치료와 교육 훈련을 진행하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호 작업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홀트휠체어농구단' 등 예술과 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정을 위해 주간보호센터,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해 보호 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스포츠센터를 설립,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 산실 홀트학교

정신지체를 지닌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1975년 특수학교인 홀트학교를 설립, 장애 학생 200여 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공과 건립과 경기고양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사업

• 지역사회 복지 향상 및 교육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윤봉종합사회복지관·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가족 상담과 교육,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희망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1982년부터 장학금 지원을 시작, 9,100여 명에게 3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전국 300명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홀트심리상담센터

정서·행동·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해 대구, 인천, 광주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심리 상담과 미술·언어·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족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구, 하남 등 5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후원회

지역사회의 적합한 모금활동과 자원봉사를 위해 전국 17곳에 홀트후원회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사업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홀트미추홀(학대피해아동쉼터)을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가족 성장에 따른 교육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상담, 가족돌봄 지원, 가족 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하남)와 우리 사회에서 확대되는 다문화가족을 돕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춘천)를 운영,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 해외 빈곤아동 결연 및 환경 개선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홀트드림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교육, 보건,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아동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애에도 엄마·아빠 딸로 태어나줘

이상호 & 박정은 부부의 레아 입양 스토리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무릇 천륜(天倫)이라 하지요. 하늘이 정해준 사이란 뜻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천사 레아 덕에 이상호 & 박정은 부부는 그 숭고한 의미를 절절히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운명처럼 찾아와준 레아

부부가 입양을 결정한 시점은 2013년, 2차 시험관사술에 실패한 후였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아이 돌봐주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여건이 되면 언젠가는 꼭 입양을 하자!' 뜻을 모은 적이 있는 부부였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입양하게 되리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였습니다.

"기약 없는 임신만을 하릴없이 기다리지 말고 입양을 하자고 제가 먼저 신랑한테 제안했죠. 어차피 입양할 거라면 임신의 여부와 상관없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고맙게도 신랑이 선뜻 동의해 줘서 바로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입양 신청 이후 1년 즈음 지났을까. 가정조사 나온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월령이 많은 아이라도 괜찮으냐?'는 것이었죠. 생후 9개월 여아. 부부는 문득 겁부터 났습니다. 여자 아이가 9개월 동안이나 입양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고민하자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아기가 헬멧을 썼다고.'

이른바 사두증이라고 했습니다. 두개골이 한쪽으로 눌러 비스듬히 기울어진 두상비대칭 증세로 심각하면 뇌출혈에 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 그에 관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했죠. 부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롯이 건강한 여아를 원해온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멧이란 두상 교정 장치였죠. 지금이야 별것 아닌 증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처음 듣는 용어라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싫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어쩐지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주,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의 늦은 오후, 정밀검사 결과 발표 날이었죠.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고양된 음성엔, 부부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습니다.



감동스런 하루하루

"사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너무나도 궁금하긴 했지만 아이 얼굴을 보고 입양 결정을 한다는 게 뭔가... 불편하고 미안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자, 했죠."

이로써 부부는 2014년 9월 18일 레아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가는 길을 축복하듯 하늘에서는 신비로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푸르른 천공과 새하얀 구름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흐르는 거였죠. 비현실적이리만치 기묘한 그날의 풍광을 부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뭘랄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해 있는 느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우리의 앞날에 긍정적인 기운이 어울진 듯해서 기분이 좋았죠."

이상호 씨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너무 예뻐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고. 하지만 박정은 씨 감정은 달랐습니다. 반갑긴 했지만 단박에 '내 아이!'란 느낌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은 씨는 확신 없는 모성애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애를 위해 어디까지 헌신하고 희생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의심했죠.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자식은 키우는 정이지, 보자마자 '우리 아이구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땐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키워보니 점점 '영락없는 우리 딸이구나!' 싶은 거 있죠? 식성부터 정리정돈 습관까지 신랑이랑 저를 빼다놓은 듯이 닮아 레아 없던 때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예요(미소)."

입양이란 행복과 동의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경이로움이며 행복감이 생각보다 무척 커서 입양을 고민하던 지난날이 무색하게 느껴지곤 한다고 말하는 부부. 사랑을 줄 준비만 돼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예비 입양부모를 향한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힘들긴 하지만, 입양을 원하면 그마저도 극복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저희도 위탁 400여 일 만인 2015년 6월에야 비로소 레아를 자녀로 등재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영겁과도 같은 날의 연속이었지만 인고하고 염원해온 덕분인지 더욱 감격스러웠답니다."

입양이 어둡고 쓰라린 어감이 아니라 해맑고 따뜻한 단어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양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는 부부는 2015년 1월 레아의 돌을 맞아 아주 특별하고 따사로운 이벤트를 실천했습니다.



돌잔치를 조촐하게 하는 대신 레아 이름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금을 전달해온 것. 앞으로도 레아의 생일마다 이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또한 영어과외교습소를 운영 중인 레아 엄마 박정은 씨의 '기부저금통' 아이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학생별로 저금통을 만들어서, 숙제를 잘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동전 하나씩을 넣어주는 식이에요. 때가 되면 모인 돈을 해당 학생 이름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하고 그에 관한 증서를 받아 선물하고 있는데, 학생 당사자야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님들의 반응 또한 좋아서 꾸준히 할 계획이에요.”

엄마 아빠의 지극 정성으로 이제 헬멧을 벗고 건강해진 레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을 딸을 보며 부부는 매일 소망하고 기도 합니다. 하나뿐인 딸아이가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그리하여 받은 사랑 베풀면서 살게 되길... 레아의 미소에 부부의 심장은 오늘도 따스한 봄입니다. #Holt



제10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공개 입양 도모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촉진해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모 주제

- “소중한 내 아이, 행복한 우리 가족”

●소재

- 입양과 더불어 탄생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 국내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한 작품
-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입양으로 만나 '가족'으로 여겨 행복했던 순간들, 기쁨과 아픔이 공존한 입양가족들의 아름다운 추억

●응모 마감

2016. 3. 31(목)까지

●참가 자격

입양가족 누구나

●공모 분야 및 형식

- 사진 : jpg 형식 (2200×1500pixel 이상 권장)
- 동영상 : 창작 제작한 동영상(사진 편집 포함)으로 3분 내외, wmv, avi 파일
- 응모 : 응모자 또는 가족이 직접 촬영·편집한 작품으로 각 1인 2점 응모 가능

●시상 내역

사진	동영상
• 대상(1점) 50만 원	• 대상(1점) 100만 원
• 우수상(4점) 20만 원	• 우수상(2점) 50만 원
• 입상(5점) 10만 원	• 입상(7점) 20만 원
• 참가 기념품 10명	

●접수 방법

- 제출물 : 참가신청서(www.holt.or.kr에서 다운로드)와 응모작
- e-mail 접수 : 사진 / 동영상 prholt@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수상작 발표

2016년 4월 22일(금)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02-331-7171 / prholt@hanmail.net

●주최 :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 보건복지부

●협찬 : (주)호텔롯데

하준이의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하준이(가명, 11개월)는 얼굴이 하얗고 선한 눈매에 예쁜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27주 5일 만에 1,080g으로 태어난 미숙아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하준이

너무 빨리 세상 빛을 보아서인지 하준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개존증, 기관지폐이형성증, 폐혈증 등 많은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맥관개존증은 결찰술을 시행해 다행히 현재는 증상이 보이지 않고 심방에 아주 작은 구멍만 남은 상태여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만 검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해서 중증의 기관지폐이형성증이란 폐 질환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천천히 호전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감염에 취약해서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리고, 합병증으로 심각한 모세기관지염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차례 아주 비싼 주사도 맞았습니다.



여린 몸에 수많은 주사바늘이...

1월 초, 하준이는 약한 감기 증상이 급작스레 발전되어 썩썩거리며 호흡이 힘든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에 입원했고, 하준이의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4일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을 옮긴 이후에도 숨 쉬는 것이 힘들어 중환자실에 들어가 기계의 도움을 받아 호흡했고, 우유병을 빨 수도 없어 코로 튜브를 넣어 수유할 정도였습니다.

가늘고 작은 팔, 다리에는 수액을 위한 주사바늘이, 코에는 수유를 위한 튜브가 꽂혀 있어 보기만 해도 안스럽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든데도 하준이는 어른들이 어른면 크게 입을 벌려 함박웃음을 짓는 강한 아이입니다. 말간 얼굴로 활짝 웃는 하준이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위탁어머니는 눈물이 나옵니다.



끊임없는 입원 치료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앞으로의 하준이가 더 걱정입니다. 집에서 하루에 2번씩 꾸준히 호흡기 치료를 해야 하고, 미숙아망막증 검사도 해야 하며, 뇌초음파도 찍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신체발달 수준이 또래보다 5~6개월 늦어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출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또 감염이 되어 입원하게 될까봐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입원을 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도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해야 하니 그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은 성장도 그저 대견합니다

얼마 전, 하준이가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놀고 싶어도 금방 숨이 차서 입술이 파래지기 때문에 바로 눕혀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성장도 위탁어머니가 보기엔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밤에 자다가 배가 고파 짹짹대는 소리에도 너무 기쁩니다. 열린 물리치료를 시작해 하준이가 빨리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땡글땡글한 눈으로 쳐다보며 웃어주는 하준이는 부드럽게 쓰다듬는 작은 손길 하나에도 행복해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봄처럼,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한글

글 _ 김혜성 · 아동양육팀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먼저 손 내밀어준 아이들의 따뜻함과 사랑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홀트드림센터 활동기

2015년 가을, 학교 생활에 지쳐 있던 저는 무작정 해외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로 잊고 있던 해외봉사에 대한 열망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으나 꾸준한 봉사활동이 없던 터라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월드프렌즈 3기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과 설렘은 더 컸습니다.



저는 과학을 맡아서 관련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만들기 위주의 주제를 선택했고, 체육 교육팀은 매일 1시간씩 태권도 수업을, 보건 교육팀은 구강 교육과 응급처치와 고학년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 생리대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미술 교육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인 탈을 소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 모양의 탈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두려움은 몽클함으로...

2016년 1월 23일 드디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떠나기 하루 전날, 모든 단원들은 미리 모여서 준비해온 교육 자료와 장기자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 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빠트리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걱정이 앞섰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니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모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가장 먼저 우리는 홀트드림센터를 찾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센터까지 걸어가는 동안 각 집의 아이들이 뛰쳐나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경계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웃는 얼굴로 한국어 인사를 하면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아이들 덕분에 두려운 마음이 몽클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시작된 해외봉사의 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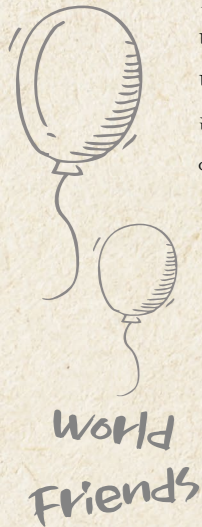
3기 '니캄내캄'의 단원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신청했던 나의 마음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연수받는 2박 3일 동안 우리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팀의 모토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후원받은 도복을 입고 '태권!도!'

영어 수업을 시작으로 이어진 미술, 과학, 보건 수업에서도 아이들은 단원들을 잘 따라주었고, 모든 단원들이 보조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매일 각 수업이 끝날 때마다 1시간씩 태권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봉사에서 가장 잘 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봉사단들이 태권도 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없었던데다, 한국에서 후원 받은 도복을 입혀 수업을 하니 아이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따라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홀트드림센터에서 보냈던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바로 체육대회. 교육 4일째인 목요일에 진행되었는데 모든 단원들이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운 좋게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캄보디아에 한파가 찾아와 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되었지만, 목요일에는 원래의 날씨로 돌아와 매우 더웠기 때문입니다. 또 오전 활동이 야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팀을 이뤄 줄다리기, 2인 3각 등 땀 흘리는 활동을 하면서 일반 수업 때보다 서로 더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고,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꿈 같았던 봉사활동을 마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그때의 8일을 되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매일 아침마다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따라줬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고 앞만 보며 지냈던 날들을 후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많은 곳에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활동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줬던 월드프렌즈 31기 '니캄 내캄'의 단원들과 홀트아동복지회 선생님들, 단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 윤희은 ·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단원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문의 02-331-7087 해외사업팀

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세아'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나눔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세아그룹'인데요, 철강 산업의 선두를 달리는 세아그룹은 정직, 열정, 실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준오의 발이 되어주세요

지난 겨울, 세아는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스토리가 있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홀트에 처음 연락을 주었습니다. 세아의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크고 작은 사회공헌활동들이 있지만, 이는 주로 각 계열사별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세아는 모든 임직원이 따뜻한 나눔의 경험을 공유,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그룹 통합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캠페인의 첫 주인공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홀트 일산복지타운의 '준오'입니다. 올해 8살이 된 준오는 현재 양 발이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골형성부전증(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쉽게 부러지는 선형성 유전질환)으로 뼈의 골절도 있어 휠체어 없이는 활동이 어렵습니다. 어린 준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준오에게 튼튼한 발이 되어주기 위해 세아의 모든 직원이 함께 뭉쳤습니다. 캠페인을 기획하고 임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세아의 홍보파트는 지난 몇 달에 걸쳐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그 결과 2월 1일, 세아 사내 게시판에는 준오의 사연이 공유되었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한 달간 많은 직원들이 그 사연을 보며 준오의 발과 마음에 힘을 보내주었으며, 특히 평소 홀트에 관심이 많고 정기적인 봉사를 해오던 세아의 몇몇 직원이 반가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작년 신입사원 봉사활동 중에 준오를 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 사연에 더 마음이 갔다고요. 준오와 같은 홀트의 장애아동들이 이번 봄에는 멋진 휠체어를 타고 동물원에도 가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신청하셨습니다.



1.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준오'를 돕는 캠페인
2. 신입사원 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세아인들의 모습



후원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나눔세아'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후원'을 의미하는 나눔과, '이야기를 나누다'는 의미의 나눔입니다. 모금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하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의 모든 과정을 임직원과 나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직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세아의 따뜻한 사회공헌을 홀트가 응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경험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봅니다.

신한은행 '연말 문화공연 신한銀 산타'



1.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1만 원씩 모은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



2. 발달 놀이터 지원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준 신한은행 임직원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뮤지컬 극장이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을 보기 위한 130명의 엄마들과 아이들의 신나는 발걸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1시간 10분 후, 공연을 마음껏 즐긴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즐거운 노래와 많은 병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극 중에 등장한 쥐 여왕님을 보며 깜짝 놀라 엄마 등 뒤에 눈을 감추기도 합니다.

“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몽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돈이 부족해 표를 한 장밖에 구입할 수가 없어 아이 혼자 공연장에 들여보내야 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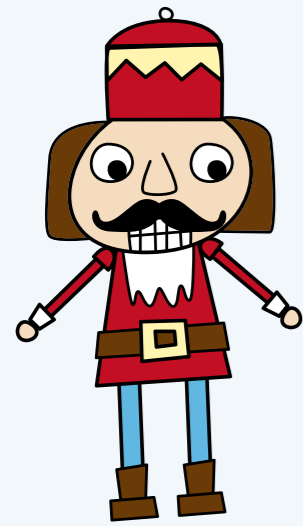
행사에 참가한 수현(가명, 28세) 씨의 말입니다. 사실 신한은행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녀가 크리스마스 때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며 속상해하는 사연을 접했기 때문. 많은 싱글맘과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준 주인공인 셈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함께하는 동행

신한은행의 아름다운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1만 원씩 모으는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홀트를 포함한 많은 단체들에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데요. 사회공헌 담당자는 “직원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모여 형성되었기에 각 사연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선정하지만, 모든 사연이 소중한해서 매번 깊은 고민에 빠진다”고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홀트의 경우, 작년 한 해 신한은행을 통해 친권포기 이동을 위한 발달 놀이터 운영 지원 및 장애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 미혼한부모로 구성된 이카펠라 합창단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안전하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었고, 장애청소년들은 문화 체험을 통한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으며, 미혼한부모들은 노래를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않고 따뜻한 금융에 앞장서고 있는 신한은행 가족 모두에게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홀트와 함께하는 이 동행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찬 발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홀트

글_ 김유진, 이윤주 · 나눔협력팀



12월 19일, 눈 오는 날
산타의 선물처럼 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연 관람 기금을 마련,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피어오른 환한 미소만큼이나
즐거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홀트와 함께한 40년의 시간

이원우 후원자의 나눔 이야기

현재 한 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원우 후원자와 홀트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를 이어 온 가족이 홀트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그에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특별한 날, 홀트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1976년 대학 2학년, 합정동을 걷고 있을 때 양화대교 직전에 위치한 홀트 본사 벽면에 걸려 있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당시 한 계좌에 5천 원의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의 신분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바로 후원을 시작했죠.”

그렇게 홀트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40년. 이원우 후원자는 인생의 절반을 홀트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내가 생겼고, 아들도 태어났으며, 이제 모두 홀트의 후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큰 기쁨이라는 이원우 후원자.

“몇 해 전, 워싱턴 DC에 방문했을 때 한국전 참전비 내용을 보게 됐어요. 1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참전해 한국 땅에서 죽어간 처참한 전쟁을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전쟁 직후 가난하고 피폐했던 우리나라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게 홀트아동복지회 아닙니까. 그곳의 후원자라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날에는 꼭 홀트와 함께합니다. 아들이 입대할 때, 전역할 때, 첫 직장에 입사할 때, 부부의 결혼기념일 때, 환갑을 맞이했을 때 등 특별한 날마다 홀트에 나눔을 실천해온 것입니다. 별 것 아니라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쉽게 행할 수 없는 일, 그렇기에 그의 이런 나눔은 더욱 위대해 보입니다.

후원의 공로를 인정받다

이원우 후원자는 대학 시절부터 한 기업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 홀트가 녹아 있으며 마치 자신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홀트아동복지회 60주년 기념행사 때는 후원자 대표로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행사 중 홀트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며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들어 다각도로 사진을 찍던 후원자 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앞으로 대를 이어 홀트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들이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럼 손주도 생길 텐데, 대를 이어 나눔이 계속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만으로도 멋지지 않나요?!

홀트를 설립한 해리 홀트 부부와 현재 이사장인 말리 홀트 할머니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원우 후원자와 가족. 홀트의 창립 50주년과 60주년,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날에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 줄 그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홀트**

글_방은지·나눔지원팀



1. 후원자 가족 사진
2.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후원자 대표로 상을 받은 모습 (오른쪽 첫 번째부터 이원우 후원자와 부인)



“저희에게 주신 나눔, 다시 나누면서 살아갈 거예요”

많은 한부모 가정이 그러하듯 김유정(가명) 씨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다, 막내는 두 개골조기유합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건 늘 용기를 주는 아이들과 홀트를 통해 알게 된 후원자들 덕분이죠. 그들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고, 적은 돈이라도 후원을 하게 되었다는 그녀. 이게 바로 사랑과 나눔의 힘이 아닐까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부부 관계나 다름이 없었는데도, 남자 쪽 집안에서는 또 한 번 그녀를 찾아와 상처를 줬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울 자신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보내라는 것, 그럼 고아원에 데려다주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이었습니다.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도 이렇게 맑고 밝고 순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웃음)?”

과연, 아이들이 어찌나 순하고 씩씩한지 낯선 취재팀에게도 선뜻 다가와 손을 내밀고 말을 걸며 미소를 보냅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작은 투닥거림조차 없이 서로를 챙기고 안아주고 뽀뽀하는 모습이 감동스럽기까지! 유정 씨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축복이 우리 가족을 품꾸게 합니다

한쪽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곤히 잠들었던 막내가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작은 몸뚱이에 커다란 헬멧을 쓰고 있는 게 답답하고 짜증날 만도 한데, 아이는 금세 방긋대며 엄마에게 애교를 발사합니다.

아이의 병명은 두개골조기유합증. 두개골을 이루는 뼈들의 조합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머리 모양을 형성하는 병입니다. 2달 전 눈썹 주위의 뼈들이 붙어 얼굴이 틀어지는 걸 바로 잡기 위해 뼈 절단 수술을 진행한 상태며, 현재는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경과를 보고 재수술을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 엄마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후 4개월 때 건강검진에서 알게 됐어요. 병원을 3~4군데나 돌아다니며 결국 확진을 받았죠. 그때의 절망적인 심정이란 정말... 평생 올 걸 그때 다운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도 힘들지만,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게 참 힘들었어요. 수술 후 아이가 입원했을 때 첫째와 둘째를 내내 병원에 데리고 있어야 했던 것도 다른 환자분들께 눈치가 많이 보였고요.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술을 후원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축복이었죠.”

사실 가족이 경험한 축복은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막내가 아프기 전, 홀트라는 축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 육아 커뮤니티 학부모 게시판에서 홀트와 ‘365 베이비 케어 키트’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 당했던 거 있죠? 그 후 막내가 아프면서 홀트의 도움을 받게 됐고, 그 이야기와 아이들의 사진, 수술 결과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이야기를 눈여겨보고 있던 한 담당자분이 삼성디지털프라자의 크리스마스 세탁기 후원 이벤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딱 20명만 선택되는 건데, 이번에도 또 제가 탈락 당점이 된 거예요. 제가 당첨운이 있는 것 같죠(웃음)?”

그간은 세탁기가 없어 한겨울에도 손빨래를 해야 했던 유정 씨. 아이가 셋이니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하지만 이제 때도 잘 빠지고 아기 빨래 코스도 있는 세탁기로 마음 편히 빨래를 할 수 있다며, 유정 씨가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우리집 보물’이라며.

“아이가 아프고 나서 홀트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개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에 착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고, 저처럼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죠. 사실 생활비 130만 원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하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그나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으로 알았으니, 앞으로도 적은 돈이라도 후원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제 아이들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녀는 얼마 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육아와 병행하기에 제격이란 생각에서입니다. 공부가 잘돼 하루 빨리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생활이 나아지겠죠. 내 아이가 아프지 않고 밝게 자라나는 것, 바로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 아닐까요?

미혼한부모를 지원해주세요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꼭 지키리라는 삶의 철학

그녀의 나이 이제 스물다섯. 세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후자는 묻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녀에게 그 다른 선택이란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모님의 이혼, 그래서 자신을 두고 떠나버린 어머니로 인한 깊은 생채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난 꼭 내 아이를 지켜줘야지’란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첫째가 생겼을 때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부득이하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둘째까지 낳았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죠.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실 막막했어요.”

“15년 근속상에 이어 끝까지 완주할래요”

1999년 12월 위탁모 활동을 시작한 오세숙 어머니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나 이제는 엄마가 된 두 딸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엄마를 많이 도와준 두 딸이 커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능숙히 돌보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그녀. 이런 든든한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오세숙 어머니는 오늘, 15년 근속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울며 보낸 아이, 다시 만났을 땐 웃으며 보냈죠

이웃의 권유로 시작된 위탁모 활동을 해온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37명의 아이를 돌보며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많았지만, 특히 아이들과의 헤어짐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입양 가고 나면 허전하고 그리운 마음에 한동안 마음이 아파요. 아이가 입었던 옷 냄새도 맡아보고, 사진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리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른 아이를 양육하면 조금 괜찮아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며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다른 위탁모들이 그렇듯 오세숙 어머니 또한 이별의 아픔을 또 다른 아이를 돌보며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잘 돌봐 입양을 간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해 소식을 알려오거나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녀는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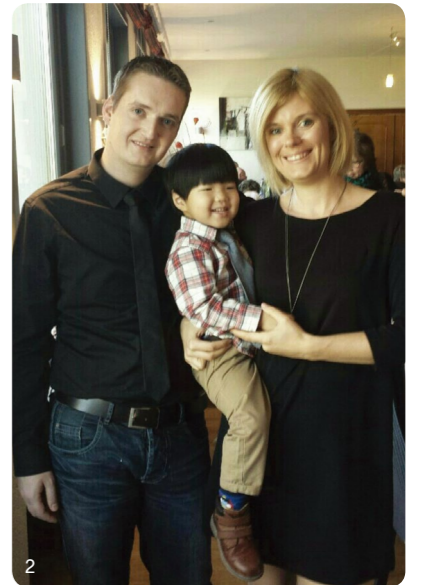
“지난 여름, 입양 갔던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자랐는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이와 양부모에게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손주와 다함께 민속촌에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죠. 과거에는 울며 보냈던 아이를 이번에 만났을 땐 웃으며 보냈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지만 양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오세숙’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또렷이 발음한다고 합니다.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저것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아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한껏 묻어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 곁에 있길...

“모든 위탁모들이 그렇겠지만 아이를 돌보는 건 힘든 일이에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홀트의 아이들은 제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고 싶어요.”

오세숙 어머니는 작년 12월 장기근속 위탁모 수여식에서 15년 근속상을 수상했습니다. 15년이나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준 위탁모에게 홀트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오세숙 위탁모. 그 바람이 이루어져 홀트 위탁모 명예퇴임상을 받는 날도 꿈꿔봅니다. 



1 젊은 시절 오세숙 위탁모
2 다시 만난 입양가족
3, 4 민속촌 나들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활동 ‘도전, 행복 한 걸음 더!’



1. 드럼 활동
2. 요리 활동
3. 특수체육 활동
4. 평화누리 외부 활동
5. 인지 활동

소박하게 쌓인 눈 위에 맨 처음 발자국을 새기는 행동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미소 짓게 합니다. 한걸음센터는 그러한 설렘을 안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첫 발자국을 새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미소 짓기를 바라면서...

도전! 행복을 위한 첫걸음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7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선정되어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집단 activity center 모형 개발-도전, 행복 한 걸음 더!’ 사업을 1년간 1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준비 후 9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의 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4명입니다. 현재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2:1의 비율로 주4회, 10시

부터 4시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걸음센터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확대 예방, 잠재 능력 개발 및 사회 적응력 향상,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 기능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기존의 ‘확립화된 집단 보호’에서 ‘맞춤형 자기주도적 활동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이용자:담당 직원 =2:1’ 비율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행한 지 약 반년이 경과한 지금, 가끔 이용자의 돌발행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안정된 분위기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걸음센터의 전문 서비스 제공

한걸음센터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육, 요리, 시청각 활동, 재활헬스, 공예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등 사회 참여 활동, 문화·여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학과 교수, 행동수정전문가, 장애인인권전문가, 발달장애인 부모 등 관련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회의를 월회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로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담당 사회복지사 소진 예방을 위한 상담 지원도 월회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응용행동분석 전문가, 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등을 연계해 필요 시 즉각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는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도예, 제과제빵, 체육,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의



사소통,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에 의한 자기주장 프로그램과 주기적인 부모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물론 가정에서의 일관된 개입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걸음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이용자와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정책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인터뷰 1

작지만 큰 변화

- 박수희 사회복지사

처음 이용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격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마저 품었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소통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짧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과거에는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고만 했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원인을 찾아내고 욕구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문제 행동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수정이 아닌 욕구 파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인터뷰 2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 시도

- 이정필 사회복지사

저희는 이용자들이 응원하기 전, 부모님들에게 컨디션과 특이사항에 대해 전달받습니다. 미리 프로그램을 계획해두지만 그보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굳이 드시고 싶지 않은 이용자에게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원하는 것을 욕구 카드 등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은 강제하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며 선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 _ 이정필, 박수희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지원팀

맨발 탈출 11세 학대 소녀, 그 뒷이야기

지난 12월, 온갖 매체를 뒤덮었던 맨발 탈출 11세 학대 소녀를 기억하시는지요. 소녀는 곧 홀트아동복지회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온정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한 사랑을 통해 평범하고 어여쁜 10대 소녀로 자라나고 있는 그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소녀에게 쏟아진 관심과 온정

2015년 12월 12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 작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찬바람 부는 바깥 날씨와는 전혀 상반되는 맨발에 반팔, 반바지 옷차림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아이... 11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체구를 가진 소녀의 몸무게는 네 살 아동의 평균에 해당하는 16kg. 이 소녀는 친부의 지속적인 폭행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놀라운 사연에 시민들이 함께 가슴 아파했고, 소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홀트아동복지회로 응원과 사랑의 후원 전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이를 위한 신발부터 학용품까지 선물이 도착하고 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용계좌는 소녀를 응원하는 문구로 가득 찼습니다.

나 대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송금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필요한 문구류를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거주하는데 잠시 한국에 갔다가 기사를 봤어요. 저희 집이 넓고 나름 괜찮은 직업이라 안정적으로 살고 있네요. 아이들도 셋이다 보니 친구처럼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피자를 좋아한다는 신문 기사를 봐서요. 피자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아이 신발 사이즈를 알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전달하고 싶어요!” 후원계좌를 묻는 문의 등 맨발 소녀를 걱정해주는 후원자들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일몰 즈음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아이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을 찾지 못하겠다는 전화였죠. 직원이 나가 주변을 살펴보니 허름한 복장에 지팡이를 짚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후원자세요?”라는 물음에 환한 미소로 화답해주신 어르신. 그의 손에는 작은 완성이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 대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라며 인형을 건넨 어르신의 인사는 맨발의 소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나누는 소녀

소녀는 한 달여간의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학대아동쉼터에서 머물며 통원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16kg이었던 몸무게는 23kg이 되어가고, 쉼터 선생님들에게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나눠주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식사 조절로 마음껏 먹을 수는 없지만 곧 그런 날이 오리라 믿으며, 4살로 보였던 작은 아이는 이제 손톱에 매니큐어도 칠하고 예쁜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할 줄도 아는 10대 소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11세 학대아동 사건을 시작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각종 대책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학대 피해아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Holt](#)

* 홀트아동복지회의 학대아동 예방 사업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2015년 한 해 234건의 학대아동 사례를 지원했습니다.

홀트미추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에 이어 2016년 1월부터 홀트미추홀(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었던 인천에 첫 문을 연 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공간을 제공해 안정적인 보살핌과 다양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동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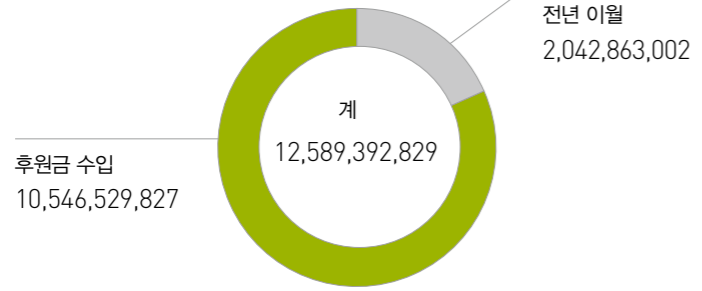
* 맨발 탈출 11세 학대 소녀 모금액 69,163,224원 전액은 아동 전용계좌로 전달되었습니다. (후원문의 : 1899-0923)

2015 후원금 사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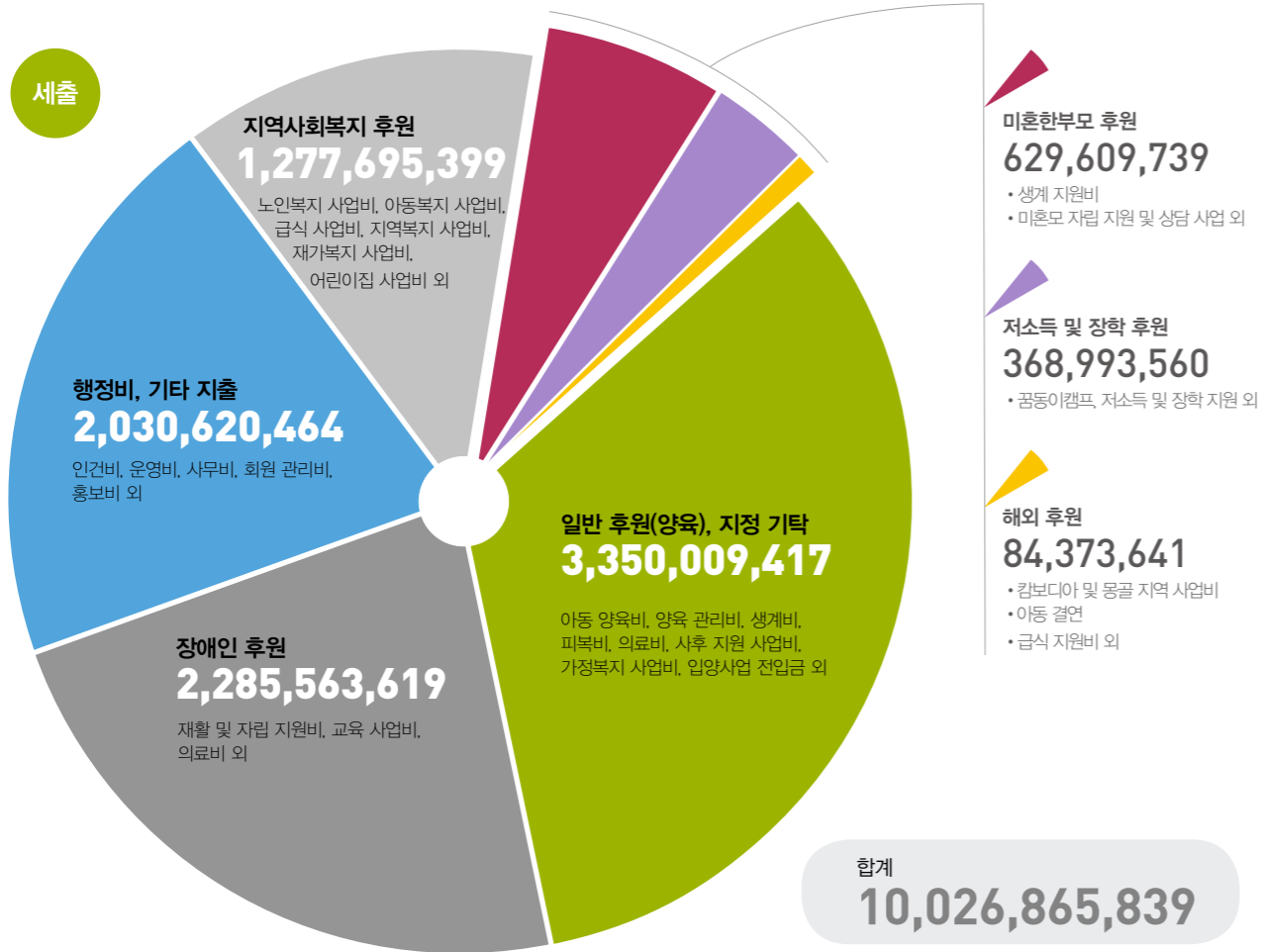
2015년 홀트를 사랑하시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들로 국내·외에 나눔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홀트는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홀트를 믿고 응원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2015.1.1~12.31) 단위: 원

세입



세출



2015 홀트마을 나눔 이야기



37,548 / 27,941

37,548명 교육 / 27,941명 무상급식

해외 빈곤 아동을 위해 캄보디아, 몽골에 있는 홀트드림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을 진행했고, 무상급식, 분유 지원, 의료봉사 등도 제공했습니다.

해외 사업



328 / 308

328명의 아동 보호 / 308명 입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아픈 아이들을 홀트병원에서 치료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했으며,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국내 사업

335명 장애인 보호 / 182명 장애인 교육

335 / 182

홀트일산복지재단과 홀트학교에서 장애인 보호 및 재활, 교육 등을 펼쳤습니다.

1,104,560

1,104,560명 지역사회 복지 제공

전국 5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급식 지원,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73 /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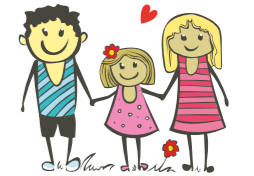
173명 미혼양육모 및 아동 보호 지원 / 250가정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자립을 꿈꾸게 하고, 250가정에 육아지원금 및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121,911명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 도모

121,911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24명, 3억 6천 8십만 원 장학 지원

324 / 360,800,000

전국 빈곤가정 아동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돕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 사회공헌 ●

외교부 외교정보보안관리관실 기부금 전달식



외교부 외교정보보안관리관실 임직원들이 2월 3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외교부 내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과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미혼한부모를 돕는 데 사용된다.

유한킴벌리와 이지웰가족복지재단이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



2월 1일 유한킴벌리와 이지웰가족복지재단의 기부 나눔 전달식이 있었다. 유한킴벌리 임직원들의 급여 1%를 기부해 조성된 모금액으로 이지웰가족복지재단과 연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글맘 가정에 양육물품과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했다.

달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돌'



12월 23일 달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0명과 함께하는 양육아동의 돌잔치가 있었다. 사내 이벤트를 모인 후원금으로 진행된 돌잔치에 축하 메시지, 작은 선물, 생일축하 노래까지 더해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배우 이민호 기부플랫폼 프로미즈와 사회공헌 협약



배우 이민호 기부플랫폼 프로미즈와 2월 18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프로미즈는 2014년부터 홀트와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번 협약식에서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롯데홈쇼핑 '착한 정소 기부 바자회'



12월 18일, 롯데홈쇼핑 인기 프로그램인 <정소>가 계속된 신기록 행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직접 판매까지 진행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바자회를 진행했다.

● 본부 ●

선·정혜영 홍보대사, 위기가정 아동 교육비 1억 원 기부



2월 22일 선, 정혜영 홍보대사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선 정혜영 홍보대사는 위기가정 아동 교육비 1억 원을 8년째 기부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은 홍보대사 활동 10주년을 맞아 더 의미가 깊었다.

홀트미추홀 개소 입주 예배



학대피해아동쉼터인 홀트미추홀 개소 입주예배를 1월 18일 진행했다. 이날 입주예배에는 말리홀트 이사장, 김주현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아동들에게 안정적 인 보살핌과 상담, 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CCM 가수 박요한, 홀트패밀리로 위촉



12월 14일 CCM가수 박요한 씨의 '홀트패밀리' 위촉식이 열렸다. 박요한 씨는 홀트 입양인으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미혼양육모를 돕기 위해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을 진행하고 있다.

쌍령초등학교 어린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쌍령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연말을 맞이해 캄보디아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노트, 필통 등 학용품을 선물을 했다. 이 선물은 1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 지방사무소 ●

광주사무소, 입양가족 사후부모교육 워크샵

광주사무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전남지역 한사랑회 입양가족 사후부모교육 워크샵을 가졌다. 총 50명의 입양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레크리에이션과 부모교육, 반면견 입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원사무소, 동절기 입양가정 지원



강원사무소는 동절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입양가정 2곳에 겨울 난방비, 생활용품, 난방용품, 내의 등을 지원했다.

인천사무소,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식



1월 12일 인천사무소는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홀트미추홀, 캥거루 스토어 직원 및 아기사랑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감사예배와 하례식을 진행했다. 개관 후 처음 맞이하는 신년회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북사무소, 홀트전북 한사랑회 연말 가족모임

홀트전북 한사랑회는 12월 19일 연말 가족모임을 가졌다. 총 11가정(30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를 돌아보며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6년에는 더욱 활성화되는 전북한사랑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킨텍스 NASA 휴먼어드벤처展 나들이



2월 1일 <NASA 휴먼어드벤처展>의 초대로 '에스더의 집'과 '민음의 집'에 사는 학생들이 킨텍스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전시회를 통해 우주 탐험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체험 등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



홀트타운 식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올해도 대성그림의 김영대 회장님과 나이기 코리아, 그리고 지인들의 후원으로 12월 23일 개최되었다. 또한 '희망이음'과 '굽네치킨'의 점심 간식 나눔으로 파티가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 홀트학교 ●

겨울방학 늘해랑학교 진행



1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겨울방학 늘해랑학교가 열렸다. 홀트학교의 학생 30명과 공동 박물관 견학, 놀이시설 체험, 영화관람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청소년 직업 체험 '계절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계절학교'를 실시했다. 적성검사 이후 김치공장, 마트 등 다양한 일터를 방문해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의 적성과 호감을 파악하고 직업재활로 연계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가족송년회 개최



대구복지관은 12월 8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과 봉사로 나눔을 베풀어준 홀트 가족 250여 명과 홀트가족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감사패 시상과 특별공연, 홀트 직원의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쌀 전달식



1월 12일 운봉복지관 강당에서 넥센월석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실시했다. 반송·반어지역에 총 822포(3천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고, 복지관에는 272포를 후원받아 지역 내 저소득가정으로 전달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졸업식**



2월 5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3명의 졸업식을 진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선생님들의 격려인사, 재학생들의 송사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의 하남뉴스에서 취재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도 되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큰사랑 어른신 생신잔치**



12월 11일 수영사랑회와 함께하는 큰사랑 어른신 생신잔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어른신 생신 축하와 노래자랑이 진행되었다. 수영사랑회가 준비한 음식으로 더욱 풍성한 생신잔치가 되었다.

본리종합사회복지관, 본리후원회 창립



12월 4일 제2회 본리가족의 밤 행사 때 본리종합사회복지관 후원회 창립식이 열렸다. 총 15명의 참여로 후원회가 출발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소리 없는 나눔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아침뜰, 미혼모자 인식 개선 사진·UCC
공모전 시상식**



'스마일~ 찰칵! 미혼모자 인식 개선 사진, UCC 공모전' 시상식이 12월 9일 아침뜰 후원회 '나무새' 회원과 100여 명의 미혼모자가족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 수상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재가미혼양육모들이 모여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고운뜰, 홀트고운학교 졸업식



학생미혼모의 학업을 위한 대안학교인 '홀트고운학교'의 교육과정 마친 학생들의 졸업식을 2월 19일에 진행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을 축하하기 위해 관공서 관계자들과 강사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름뜰, 입소 아기 돌과 백일잔치

12월 21일과 22일 아이들의 돌잔치, 백일잔치가 연이어 열렸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돌잡이에서 판사봉을 잡아 아름답 식구들의 큰 축하 박수를 받았고, 백일 아기도 잔치 내내 방글방글 웃으며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구클로버, 입소자 자립 역량 강화 교육



1월 20일부터 주1회 '심표와 느낌표' 기관과 연계해 적성검사, 1:1 멘토링 취업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방법 등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입소자 자립 역량 강화 '취업 코칭'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클로버, 홀커밍 데이

12월 23일 함께 생활했던 퇴소자들을 초대해 입소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입소자들이 자립을 위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아가들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퇴소한 아이들의 선물도 잊지 않고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인그룹상담

'사.이.중.我' 프로그램 진행

1월 21일부터 개인그룹상담 '사.이.중.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상담을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2015년 사업보고대회를 12월 12일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특별히 '소통'이라는 주제로 유관기관 담당자 외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희망마차 식품 나눔행사' 진행**



1월28일 서울시와 이마트, 서울광역푸드뱅크의 후원으로 '희망마차 식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약 90가정의 다문화가족이 행사에 참여해 각자 필요한 설 명절 관련 식료품 및 물품을 지원받았다.

**춘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대축제
'1 LOVE KOREA Festival'**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인 '1 LOVE KOREA Festival'이 12월 11일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종강식, 말하기 대회 시상, 장기자랑 대회 등이 진행됐다.

● **심리상담센터** ●

홀트심리상담센터,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진행



꿈과 희망 지원사업 대상자 가족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12월 22일 진행했다. 즐겁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밀한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 **전주영아원** ●

희망나무 사랑예술제



12월 19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도내 16개 시설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재능 발현의 기회 마련을 위해 제10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6명의 원아들이 참가해 공연을 선보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던 예술제였다.

● **어린이집** ●

중등어린이집, 할아버지·할머니 생신 축하공연

만4세 유아들이 할아버지·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 1월 13일,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했다. 노래와 율동을 보신 어르신들의 칭찬으로 공경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마포어린이집, 아쿠아리움 견학



1월 19일 코엑스 아쿠아리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아이들은 물고기 감상, 해양생물 만지기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홀트어린이집, 작은 발표회

12월 23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홀트 천사들의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솜씨들을 발휘해 깜찍한 율동과 연주들을 선보이며 참석하신 부모님들께 감동을 선사했다.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천대 길병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협약 체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월 21일 가천대 길병원과 학대피해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 **후원회** ●

**경북후원회, 포항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우수 봉사단체 표창**



지역사회 나눔과 참여로 따뜻하고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포항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일하는 경북후원회가 우수 봉사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대전후원회, 크리스마스 투어팀 초청 만찬



대전후원회는 12월 10일, 미국 국제홀트 입양가족 및 후원자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투어팀을 초청했다. 이날 만찬을 통해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나눔과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용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

회복을 꿈꿉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은 CCM 가수 박요한 전도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CCM 콘서트 형식의 나눔예배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상 속 사역에 동참하기도 약속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나눔협력팀 02-331-7144

CCM 가수 박요한 프로필

- 기대의 워킹 팀으로 데뷔
- 대표곡 : 기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축복의 사람, 언더우드 의 기도
- 방송 : CBS TV 성서학당 출연, CTS 라디오 번개탄 - 천국투게더 진행
- 저서 : 요한의 고백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홀트아동복지회 사회공헌 협약

2015년 2월 6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와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는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돕고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홀트 김대열 회장(서울동광교회 장로)은 기성과 홀트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통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홀트에는 현재 임병우 목사(이수성결교회 원로목사)가 교회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며, 교계와 기관이 협력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1899-0923 / 02-331-7144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79037-01-000243 • 예금주 : 홀트아동복지회

가고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한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자신의 집이 될때 건강, 화목, 성공이 시작됩니다.
한샘은 개성 있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동북아를 이끌어 갈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 한샘
company.hanssem.com